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제6호  
**한글 손편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동화작가이시잖아

동화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널리 알리셔서 장애인도 꼭 힘들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없애서 계시잖아.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거야! 니가 이것을 생각하며 너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좋겠어.

너희 아버지의 동화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외삼촌 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신보다 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놀리고, 잘난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나중에 아픔이 치료된다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틀림없이 부끄러워 질거야

준이야!

힘을내!

나도 네 편이 그리고 우리 삼촌의 편이 되어줄게!

우리 모두 **행복하자!**

2020년 8월 3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선우가

